



GMP 국제 라미네이팅 & 코팅 세미나 2010 40여 개국 바이어 초청 최신 서멀라미 소개

(주)지엠피(대표이사 김양평)는 International Seminar 2010 을 지난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경기도 파주시 문발공 단에 위치한 본사에서 개최했다.

지엠피가 매년 11월마다 실시하고 있는 국제 라미네이팅 & 코팅 세미나는 올해 약 40여 개국의 바이어를 초청해 신제품 발표 및 기술 교육을 실시했다.

김양평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느 해도 그렇지만 올해 지엠피의 기술개발과 해외시장에서의 활약은 눈부셨다”며 “효율성과 새로운 수익창출을 도와줄 지엠피의 신기술과 신제품을 만나보라”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디지털 인쇄, 오프셋 인쇄 및 옥내외 광고물, 상업용 라미네이팅 부문의 전문업체 위주로 초청하였으며 기존의 라미네이팅 세미나와는 달리, ‘써멀라미시스템(Thermalami System)’ 만을 집중적으로 선보여 디지털인쇄업계 및 출판업계에 지엠피의 독창적인 신기술을 소개했다. 또한 지엠피는 매년 3회 이상 국제 전시회에 참가하여 자사브랜드의 우수한 기술력을 세계 시장에 홍보하고 있





3



4

으며 매년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및 수출신장을 통해 선진기업의 상징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번에 선보인 신제품은 HP-Indigo의 Golden Partner 자격으로 진행한 제품으로, HP-Indigo와 함께 2년여 동안 각고의 노력과 20여 억원의 연구 개발비를 투자하여 개발한 In-line Finishing Solution용 초고속 라미네이터와 UV 코터를 HP-Indigo Digital Press(WS600P, W7200, W7500)와 함께 전 세계 디지털 인쇄업계에 보급되기 시작함에 따라 매출신장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엠피는 이번 국제 라미네이팅 및 코팅 세미나에 선보인 제품 가운데, 전자동 라미네이터 LAMIMATER-34(In-line & Near-line), 전자동 UV코터 COATMASTER-IN3752 UV(In-line & Near-line)의 2기종은 HP-Indigo와 전 세계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기술 교육은 물론 초강력 접착 라미네이팅 필름인 GMP POLYNEX Ultrabond Film의 대량공급을 위한 Distribution Center를 구축하여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한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또 다른 신제품으로는 속도 100M/min의 고속 라미네이터인 OCATGON Plus-1020J, 어떤 디지털 인쇄물과도 강력한 접착력을 지닌 초박막 16Micron GMP POLYNEX-16mic 서멀 필름, 실크와 같은 감촉의 Silk Feel Film, 지엠피의 첨단기술인 철판, 세라믹에 발열체를 직접 인쇄하는 고온 발열장치, PET에 발열체를 직접 인쇄하는 필름으로 벽체 및 곡면 바닥에 시공하는 히팅용 초절전 Flexible발열 필름(80°C) 등 다양한 신제품을 개발하여 금번 세미나 2010에서 세계 각국에서 온 바이어에게 선보였다.

지엠피의 해외영업 관계자는 “이번 국제세미나 2010은 지엠피의 고유 기술력을 바탕으로 금년 IPEX2010, KIPES 2010



5

에 HP-INDIGO와 공동 출시한 In-line Laminator 및 In-line UV Coater Commercial 고속용 기계에 대한 본격적인 마케팅 수립, 새로이 출시된 제품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바이어와의 유대강화와 상호이익을 증진시키는데 있으며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미 약 500만달러의 수주가 실현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엠피의 국제 세미나는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고 매년, 해외 각국의 바이어로부터 신기술 습득 및 자국 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익한 교육프로그램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68개의 국내외 발명특허와 38개의 실용 신안특허를 보유한 지엠피는 각종 특허를 모두 상용화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절전형 발열체와 태양에너지 장치용 접착필름, Display 접착용 필름 개발에 새로운 사업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엠피는 2011년 5월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리는 Graphic Media 2011 전시회에 200㎡의 규모로 신제품을 전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